

데스크 팁



김영민 경제부장

2018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 중 '가장 잘 사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얼마나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주저해진다.

'0.9%'에 압도되는 경제구조

실면에 참여한 상당수는 '차치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명 중 1명은 '일류 직장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평생 꼬인다'고 응답했다.

기고



이준진

광주남부경찰서 방범지구대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는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고 이를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특지광장

화물자동차의 적재위반 등 단속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및 질서문란 예방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운전자들은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성장보다 가치의 시대로

3만 달러' 시대 이전에는 사회시스템·이동성 불안의 그림자가 뒤따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6년(2만795달러) 첫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3만달러 돌파까지 10년 남짓 시간이 걸렸다.

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 기업의 0.9%에 불과한 대·중견기업에서 전체를 압도했다. 이런 기형적 경제구조는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폭풍성장보다 성숙한 분배를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상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개인 소득의 49.2%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과 행복 요인' 보고서에는 불안의 어두움만을 지적하지 않았다. '현재도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다'는 응답은 56.7%였다. '현재 불행하지만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응답은 18.2% 등 응답자 74.9%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의지를 보였다.

사회 정의를 위한 올바른 수사구조개혁 필요

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효율적인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질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기소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 수사·기소권의 분리, 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및 국민의 불편가중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권은 경찰관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한정하고 수사 전문기관인 경찰에 모든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의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미시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 및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요구권 고지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

기지사침



이나라 사회부 기자

모든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성별·종교·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할 권리가 있다.

이들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장애등급제 폐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 일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택시라는 이동수단을 우리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면 할증이라는 것이 불지 운영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운영되는 일반택시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행(도로교통법 제37조) 범칙금 2만원, 번호판 고의 가림·알아보기 관련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격증 미취득 운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public utility.

Table with 3 columns: Contact info for Jeonnam Daily (news, advertising,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 for Jeonnam TV.